

제2대구치 치관연장술을 위한 골든타임 : 사랑니 발치

드림팩토리치과

윤우혁

제2대구치는 모든 임상 의들에게 항상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치아라고 생각된다. 복잡한 구조의 신경 형태로 인해서 근관치료도 어렵지만, 근관치료를 잘 마친 후에도 대부분 제2대구치는 짧은 치관길 이로 인해서 크라운 수복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부적절하게 짧은 치관길이를 가진 크라운은 유지력의 부족으로 잦은 탈락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구 등을 통해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실제 그 정도로 는 짧은 치관이 갖는 유지력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제2대구치 부위는 접근도 어렵고 치조골도 대부분 풍용하기 때문에, 제2대구치에 치관연장술을 시도하는 것은 임상가들에게 늘 망설여지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3대구치가 함께 존재하는 제2대구치의 경우엔, 제3대구치의 발치와 함께 치관연장술을 함께 시행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치관길이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랑니 발치를 이용해서 제2대구치의 좀더 효율적인 치관연장술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